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⑥

불교운동이 시작된 오대산 월정사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법정 스님이 "거기 찾아가면 자네 얘기를 하면은 될 거다. 그러고 내 얘기를 같이 해라"라고 하길래 소개장을 한 장 써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개장을 받았지. 법정 스님이 소개장을 써 준거야. 그러고 인저 말하자면 효당 스님한테 간 거지(1976년). 그랬는데 "아 거긴(다솔사 효당 문하) 내가 더 머물러야 될 곳은 아닌 거 같아. 그러고 인저 마침 탄허 스님…"

그 스님(현각 스님 등)하고 나하고 의기투합이 됐어. 의기투합이 되가지고 저 "탄허 스님이 천재니까 우리 저 천재를 한번 저거 해가지고 큰 공부하는 회상(會相)을 만들어보자." 이를 산림(山林)이라고 하잖아, 절에서는(1977).

"한 잔씩 먹이는 거야. 송차를. 그러면서 친한 거야 그 때 (화엄산림에서) 친한 사람들이 대불련 지도법사단 했던 사람들이야."

"(탄허) 스님이 주례 서기로 하고(1980)"

발언은 여익구가 효당 스님의 제자로 출가했다가 다시 탄허 스님의 품에 안긴 뒤, 월정사에서 불교운동의 새로운 역량을 잉태하는 시간을 갖은 부분이다. 1980년 환속한 그는 그해 9월 탄허 스님의 주례로 결혼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검거된 여익구는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당대의 고승들을 두루 방문해 자문을 들었다. 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뒤 골목사진. 지금은 사라진 건물 2층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됐다

신독재에 항거하는 역량을 불교계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식과 같이 하는 스승들을 찾지 못하다가, 효당 최범술 스님과 탄허 스님의 시대 인식을 읽었다.

이미 민중불교회 사건으로 여익구와 전재성은 검거됐지만, 탄허 스님 역시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대원암 독서클럽은 와해됐다. 당시 탄허 스님은 〈신화엄경합론〉 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승으로 추앙받던 탄허 스님의 출판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때 여익구는 당시 월정사 교무였던 현각 스님(現 원주 성불사 주지) 및 비구니 성일 스님(現 대부도 신흥사 주지) 등과 이벤트를 협의했다.

'화엄산림'으로 불리는 〈화엄경〉 대강좌 법석을 기획하고 전국에 방을 붙였다. 젊은 수좌들이 몰려들었다. 법석은 1977년 겨울 성황리에 진행됐다. 여익구는 이때 수좌들과 친분을 쌓았고, 불교운동을 주제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오대산 솔방울로 담근 송차를 마시면서. 월정사 '화엄산림'에서 인연을 맺은 스님들은 후에 여익구의 든든한 후원을 자처한다.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종단과 사원이 짓밟힌 사건이 10·27법난이다. 이 때 여익구는 스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항거하지 못하고 순종이 가져오는 피폐를 역설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스님들의 지지를 받았다. 승가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여익구는 이듬해인 1981년 대불련사무총장에 취임한다. 그 직책은 대불련의 불교운동을 지원하는 담당이다. 여익구는 1977년 당시 화엄산림에서 만났던 스님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얻어냈다.

황칠명인 구영국 교수의 전통문화산책-1

황칠은 대자연의 근본적인 섭리에 순응한 전통

모처럼 촉촉한 봄비가 아침부터 내리며 만개한 꽃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바람을 가르며 인사동을 향해 달려가는 빨간 좌석버스의 먼지 낀 차창을 비가 핥으며 종로 길을 바삐 내주고 있다.

한 나라의 태평성대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을 때 좋았고, 한 국가의 건재함은 전쟁이 없으니 좋았고, 한 민족의 행복은 풍요로운 그리고 먹을거리가 풍족한 먹을 곡식이 걱정 없는 풍년 속에서 행복했다.

인간이 대자연을 무참히 파괴해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어처구니없게도 자연의 혜택을 다시 받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너무 이치에 맞는 도리가 아닌 것 아닌가. 지구 중심부에 모든 것을 녹이는 3000도가 넘는 극한 열기가 존재하고, 여러 지형 판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대재앙의 지진과 쓰나미가 지구안쪽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심장 중심부에 뜨거운 전통을 사랑하는 민족적열정과 연민과 사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 심장 안쪽에 장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이 가득차고 폭발이 끝나 미움의 판들의 이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류 문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통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 민족이건 간에 자국민의 고유전통이 존재 해 있고, 이 전통은 인류를 심각한 문화의 재난으로부터 구원 할 수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인간답게 진화 할 수도 있게 만든다.

언제나 부족한 인간은 순리 앞에 겸손해야 함을 알아야하고, 진리 앞에서 마음이 겸허해야하며 대 자연 앞에서 거듭 숙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치를 진정 모른다면 지구상의 인류는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연현상의 체험으로 그리고 실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은 순리이고 순응섭리현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대자연 안에 스스로 멍들어 있으며 우리가 저 거대한 대자연을 수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과오적 착각은 이미 옛날에 했어야 했다. 지금은 똑똑하다는 우리 인간군집들이 만들어 낸 문명과 원자력 발전기에 의해서 스스로 파괴되는 파멸의 바람으로 대재앙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진 실제 문화지구의 현실이다. 세상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순리는 현상에 있어서 잘못됨을 끌어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상대적 순응이라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거를 뿐이다.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뒤집어지면 배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는 배를 내놓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정을 주고 문화를 주고 소중한 가치의 생명과 혼을 안겨 주면 어떨까? 그것으로 그 사람의 배를 따뜻이 덮어주고 보듬어 주면 안 될까. 그러면 그도 돌아누워 일어나 언젠가는 나와 우리와 전통을 사랑하지 않을까?

1400년 전의 황칠은 이미 우리조상들의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서 200여 년 전 절종됐었지만, 왕실과 궁궐의 귀족공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찬란한 천연 황칠은 지금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연현상이고 순리를 따른 어쩌면 정말 신이 내려준 신비의 나무에서 나온 천연 칠(漆)인 황칠(黃漆)이 대자연의 근본적 섭리에 지극히 순응한 것이라고 필자는 평생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 이 진솔한 이야기의 사실에 지금의 우리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행복해 져 가고 있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 싶다.

백제황칠명인 제1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㉘ 용문석굴2

신앙이 새로운 옷을 입다

용문석굴은 측천무후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면서 화려한 석굴의 조영시기를 맞이한다. 봉선사동(奉先寺洞), 만불동(萬佛洞), 뇌고동(擂鼓洞), 고평군왕동(高平君王洞), 간경사동(看經寺洞) 들이 그러하다. 봉선사동이 화엄 신앙의 중국 정착을 보여주는 예였다면, 만불동은 중국에 전래된 다불 신앙의 변천을 보여준다.

1269년에 중국 송나라의 고승 지반(志磐)이 고승의 전기(傳記)를 집대성한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만불동 개착당시의 고사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대감(大監) 요신표(姚神表)와 내도량 운선사(運禪師)가 황제와 황후 태자 여러 왕들을 위해 만오천의 불상을 석굴내에 조성하였는데 그때가 영륭(永隆) 원년(680) 11월 30일 완성했다"

만불동의 굴천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같이 새겨져 있다. 고구려에서도 다불신앙 〈현겁경(賢劫經)〉이 번역된 후 상당수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현겁경〉은 산스크리트 원전은 없으며 티베트역과 한역본이 남아있다. 한역의 경우 3세기 후반기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했다.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서도 〈불명경(佛名經; 부처님들의 이름을 기록한 경전류)〉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북위 시대에도 이러한 천불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발전하다 당나라 시대에 들어와 만불 신앙으로 새롭게 꽃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만불동의 주존불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노사나불등이라고 추정된다. 다불신앙과 주존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앞선 시대에는 신앙의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했기에 불상의 종류를 밝히는 것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흘러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불상의 종류를 명확히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만불동에는 비구니 발원의 조상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조상제기는 만불동에 집중돼 있는 점도 흥미롭다.

용문산 건너편 향당산 쪽에 조성된 뇌고대동에는 3개의 석굴이 있어 뇌고대삼동이라고 불리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의 해석이 가능하다. 남동의 불상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데 특이하게도 보관을 쓴 불상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보관을 쓴 불상이 주불로 자리 잡고 있다. 북동의 불상도 보관을 쓴 모습으로 봐서 남동과 비슷한 형태를 지녔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불상의 모습으로 대일여래상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배진달 교수는 이러한 뇌고대 남동

용문석굴에는 다채로운 신앙 표현 돼
밀교, 화엄, 선종 등 불교신앙 총 망라

을 주존인 법신비로자불과 화신 석가모니불의 천불(千佛) 도상으로 구성된 연화장세계해를 구현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밀교, 화엄, 선종등 무수한 종파적 성향의 불교가 석굴 속에서 신앙의 형태로 녹아내리고 있는 점은 불교의 색체가 다양해지고 보다 화려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평군왕동은 연화화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미타신앙이 녹아 있다. 아미타 정토의 세상을 지상에 구현하고 있는 이 굴은 무중규(武重規)에 의해 8세기 초반에 조성됐다. 이렇게 다채로운 신앙의 색채가 용문석굴에 쌓여지면서 불교신앙 또한 보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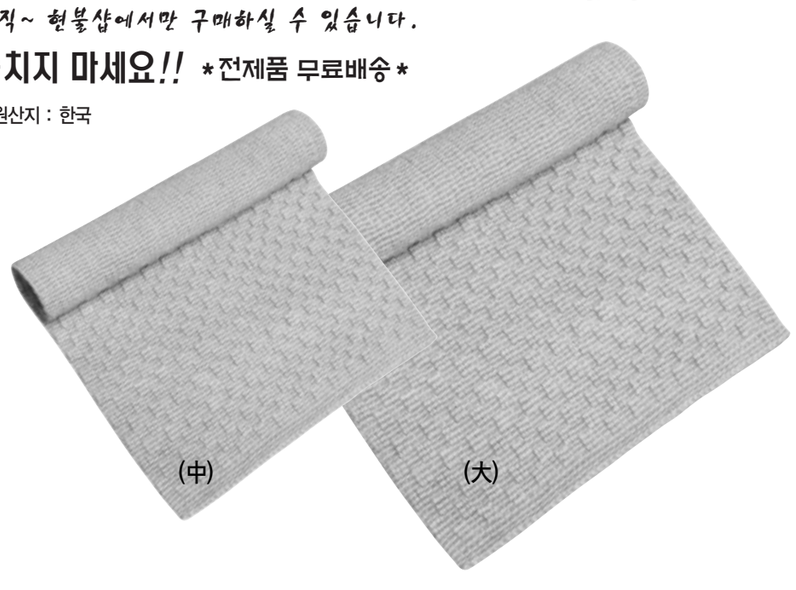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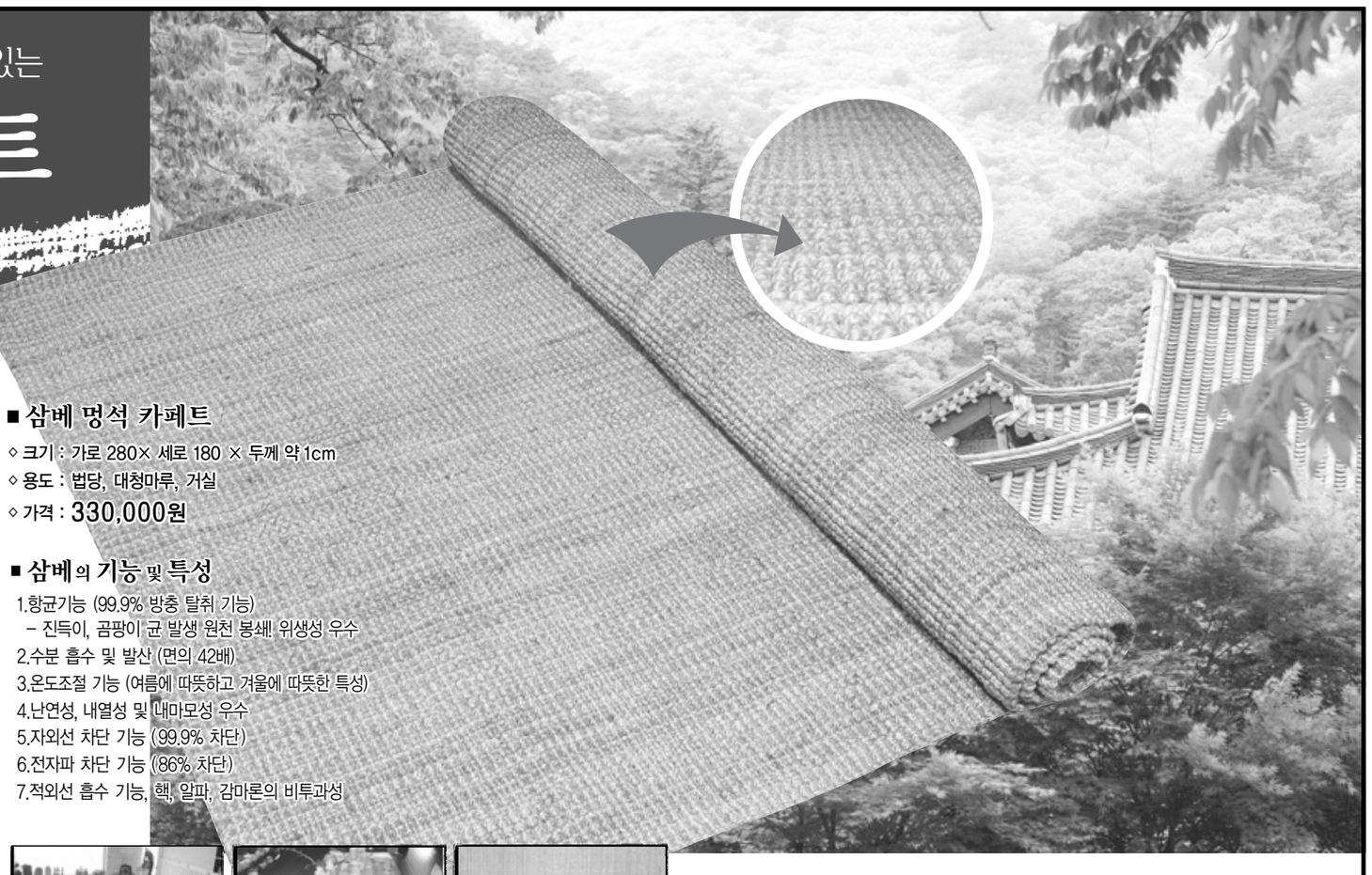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